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

제35권 17호(나해) 2015년 3월22일

[복사]



행동하는 주체인 나는 하나인데,

“이렇게 하고싶다.”는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내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다.
나는, 우리는,
인간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눈앞에 다가온 수난의 시간을 맞아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하시며 내적인 고뇌의 일단을 보여주신다.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참으로
나와,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셨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사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병위
	(생) 조병준 플로렌시오, 변숙희 뒸다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변혜경 올리안나,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현시영 요셉, 원금봉 안나, 한민교 세레자 요한, 우의형 요한, 김명수, 서정록 & 백덕돌,
	(생)서성용 베드로, 정철편마&정클라라&정세라피나& 정에릭, 남해나 베네딕다, 박홍룡요셉& 박진숙 엘리사벳, 엄주현 올리안나, 이근모 마리노& 이행자 리드비나 금명영 세실리아, 최길숙 요세리나& 최재은베드로, 장영진 안토니오, 오마우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Jeremiah) 31,31-34

화답송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 오리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5,7-9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
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
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요한(John) 3,14-21

영성체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
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세인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은사는 식별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영의 식별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영적 식별의 경험에 근거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1) 공동체의 선익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은사는 '공동선' (1코린 12,7) 곧 교회 공동체의 선익(善益)과 성장을 위하여(1코린 14,4,12; 에페 4,11-16 참조)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모든 은사는 본질상 공동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특별한 것이거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거나, 은사는 성령의 은총이며 직접 간접으로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은사는 교회의 건설과 인류의 선익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사도적인 생명력과 거룩함을 주는 놀랍고 풍부한 은총”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사람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체로 이루어졌고, 성령께서는 그에 맞게 은사를 베푸신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 12,6-8).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서 은사가 온전히 그것을 받은 사람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은총은 개인의 성화를 포함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교회의 공동 선을 지향한다.

<◆계속>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7	156	150
봉헌	352	269	126
성체	382	282	292
파견	151	218	218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될까요?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정상적인 밀이라면 주인이 좋은 씨앗을 땅에 심기 마련이고, 그 해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밀알 안에 힘찬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밀알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생명력 때문이 아니라, 밀알 하나하나에 하느님께서 담아놓으신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력이 힘차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밀알과 같은 내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이 세상에서 맹렬하게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 곧 창조 질서를 잊어버리고 혼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곤 합니다. 장수하겠다고, 아니 영원히 살아보리라고 착각하면서 별것을 다 먹고, 별 짓을 다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보리라고 매일 다짐합니다. 땅에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악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이 신뢰하면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우리도 하느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죽은 밀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연 이치를 새롭게 완성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시고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신 만만 하시

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아드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시어 사람들을 그 아드님과 함께 아버지의 참 생명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하느님의 무한한 품 안으로 모아 들이시겠다는 심산이라는 말씀입니까? 마침내 부활하신 아드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그 수난의 길,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그 길을 대담하게 따라 나서겠습니다.

◆ 주수옥 신부 / 대방동 성당 주임

중독되기 전에

너무나 사소하여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었고

이제 그 습관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에서 내려 하루 걸어보기,

불평 없이 하루 살아보기,

리모컨 없이 하루 견뎌보기,

스마트폰 없이 하루 살아내기.

이런 것들에만 길들여지기엔 우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테레사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월27일, 4월 3일)
사순 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 안나회

-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26일(목요일)
제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월 24일(화)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 에스 행사안내

- 일시 : 오늘주일(22일) 2시 30분
- 준비물 : 정장 혹은 한복, 묵주
-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4월5일 부활 대 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2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교리반 예비자 모집

-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 ~ 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22일(주일) * 토남3반 : 짜장밥(\$3)
* 주일학교 : 피자 (1학년)
- 3월29일(주일) * PV2반 : 돼지불고기 상추쌈(\$3)
* 주일학교 :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2일(성 목요일)/3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하버/카슨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P.V.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김광자 김대우 김상규 김성택 김유미 김일선 김재영 김재희 김찬구 김충섭 모은기 박영희 박정자 변복순 신윤원 안민수 안태갑 엄혜은 오신재 우영희 육근주 이병우 이상석 이상수 이우성 이일길 임 순 전정자 정훈모 최기호 최원석 최의수 최진수 현석주 호경진 홍선자 홍인표 최트로이 한길선례 합계:\$4,505	강숙경 고천용 김광자 김대우 김재희 김찬구 김충섭 모은기 박정자 안민수 안태갑 이병우 이상석 이우성 이일길 임 순 정훈모 최기호 최원석 최진수 한길선례 합계 : \$1,665
주일미사 헌금 : \$2,760	제대회 : \$371.29

공지사항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24일 (금) - 7월26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환불 불가능**)
- 신청마감: 4월5일까지 등록된 학생들만 참석 가능함.

본당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이후 등록은 불가능함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2015상반기(제28기)한국 학교 교사 연수

- 과정: 일반 연수 과정
- 장소: 은혜로한국 학교(431 Madrid Ave. Torrance)
- 기간: 2015.3.26.(목)~4.21.(화) 매주 화, 목
- 시간: 오후 7:00~9:00
- 참가자: 한국 학교 교사 및 한국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봉사하실 분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장 ☎(213)700-9399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 과정: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백삼위 한국 학교
- 기간: 4월~5월 매주 금요일 (07:00~08:30)
- 신청마감: 3월 27일

◆ 백삼위 한국 학교 단어 경시 대회

- 일시: 4월 5일 일요일

◆ 제 19 차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 일시: 3월 22일 2시 10분 ~ 3시 10분
- 장소: 백삼위 한국학교 2층 유아실
- 참가자: 2015년 11월 SAT-II 한국어 시험 응시자 (7~8학년도 가능하며, 선착순 25명)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미주 평의회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 갱신 미사

- 일시: 3월25일(수요일) 저녁 7시
- 준비물: 묵주, 성가책, 봉헌공책
- 장소: 성바실 천주교회 본당
- 637 S Kingsley Dr. LA, CA 90005

◆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3월23일: 성 토마스 성당
- 3월24일: 성 바실 성당
- 3월27일: 성삼 성당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신현화 헬레나 991-4838 3/4(수) 오후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701-6343 3/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6(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21(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심재은 클레멘스 991-8558 3/14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3/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당 625-3312 3/21(토)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3/13(금) 오전11시 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희연 루시아 818-6903 3/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박정희마리아 404-1607 3/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8 (일)오후 6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미나 213-700-6983	‘십자가의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522-2933 3/14(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십자가의길’로 대체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377-6752 3/10(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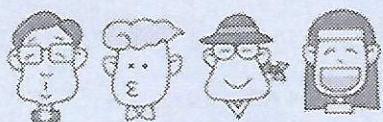
사목회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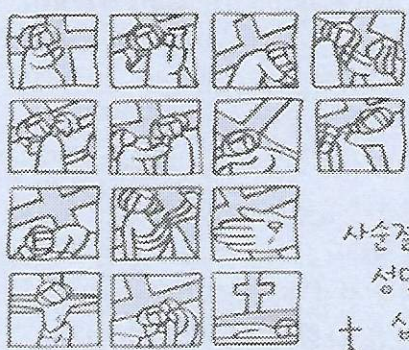
--	--

기도의 시간

십자가의 길



글: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그림: 박우철 모영고



사순절이 되면 신자들은
성당에 마련된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오래전부터 신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특별한 은혜를 청하는
길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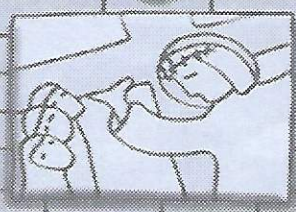


예수님 수난 + 성당

하지만 그 길은 병들거나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힘든 길이었습니니다.
이에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성당에 예수님 수난의 길을
마련한 것이
십자가의 길의
시초입니다.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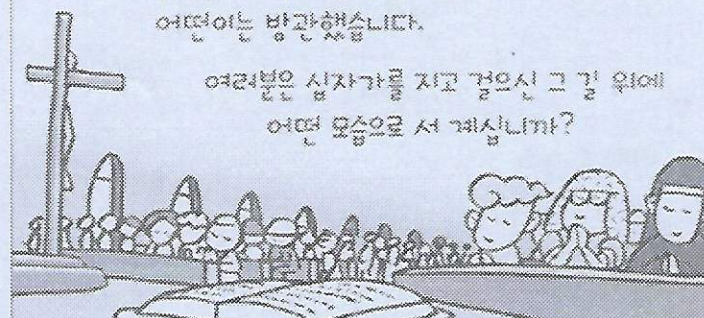
십자가의 길은 성당을 꾸미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겨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이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어떤이는 그 고통에 동참했으며
어떤이는 방관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그 길 위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품어 안고 있으며,
그분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대륙과 시대를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그치
구경꾼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함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 베네딕토 16세 교황,
2006년 4월 14일 강론 중에서

